

김제애 행복가득

# 시민 삶의 질 높여 인구감소 위기 돌파

김제시는 낮은 출산율과 청년층 유출이 연동해 매년 1,000여명 이상이 감소하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를 수범적으로 타개하고자 저출산극복, 인구유입, 시민 삶의 질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 인구유입 마중물, 시민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추진

지난해 8월 인구정책 및 지원요소를 제정,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장려금(1인당 20만원) ▲전입이사비(세대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1인당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개정을 계기로 결혼축하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신혼초기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고,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에서 다섯째아 1,000만원으로 상향했고 김제시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청소년 드림카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며, ▲청년주택수당(월 10만원 / 3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의 80% / 최대 2,0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 최대 7년) 등 주거 3중 복지정책을 통해 지역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제형 청년정책, 리턴사업 또한 각광받고 있다. ▲청년인턴사원제(중소 제조기업근로자, 2년, 월 30만원) ▲지평선 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동영상 강의, 관리형 독서실 등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들을 꾸준히 추진 하고 있다.

### 지역소멸위기 타개를 위한 김제형 인구정책 신규 발굴 주력

전세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구증가의 변곡점을 마련하고자 인구정책 핵심과제 발굴 용역 및 분야별 T/F팀을 가동하여 30개 중점사업을 발굴,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신규시책으로 보고돼 조례개정 이후 시행 중인 사업으로는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등이 있으며, ▲임신부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확대 ▲아기탄생 기념 나무심기 사업 ▲다자녀수당(셋째아 이상) 지원사업 등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개발촉진 지정선산단권역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투자선도지구내 지역상생거점단지를 거점으로 한 명품 주거 인프라를 통한 근로자 유입전략도 추진된다.

### 아이낳고 카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박차

"출생만 하면 김제시가 키워준다"는 출생 사회적 책임과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51개소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행복플러스 육아수기 공모전을 열었다.

하나배마을금고에서 우리아이 생애 첫 통장개설사업을,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임산부 조합원 진료비 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 임산부 조합원 전자파 차단 앞치마 제공 및 축하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제1회 김제 인구의 날 '행복한 출산, 보람찬 육아' 한마당을 통해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고, 미혼남녀 '2030 청춘캠프'



### 결혼축하금 1000만원으로 상향 신혼 초기 생활 안정 도와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임산부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키로

### 미혼남녀 청춘캠프 열고 출산·결혼 인식 변화 노력

를 두차례 추진, 젊은 세대들이 서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출산·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읍면동 1인구·출산장려시책으로 인구증가 공감대 형성

관내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범시민 인구늘리기·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30회 개최하였고 출산가정 축하꾸러미 전달, 제2고향만들기, 귀촌가정과 뽀마을공동체 형성, 김제 아이사랑 출산 축하금(5만원) 전달사업(요촌동) 등 1읍면동 1출산·전입장려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김제시 곳곳에서 인구유입, 출산친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6개분야 ▲결혼·주거·임신·출산 ▲영유아·다자녀가족 ▲아동·청소년 ▲청년 ▲신중년·어르신 ▲전생애 등의 시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 및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1960년대 25만명이 정주하며 농경사회를 주름잡았던 김제시가 현재 8만3,000여명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 소멸위기지역에서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